

자재 · 인력난에 아파트품질관리 '비상등'

시멘트 · 철근 등 건축자재와 시공인력 태부족

유례없는 아파트의 분양 호황속에 시공인력과 자재 부족으로 아파트의 품질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와 자재업체가 아파트 마감 품질 관리에 품질검수 인력을 대폭 늘리며 하자 감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와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초자재인 시멘트, 레미콘, 철근은 물론이고 입주를 앞두고 투입이 시작된 석고보드는 만성적인 수급 불안을 겪고 있다.

후속 공정인 창호, 마루, 타일은 자재는 물론 시공 인력도 부족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양 감소로 일자리가 줄자 마루와 타일 인력들이 현장을 떠났는데 최근 유례

없는 분양물량에 인력이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다.

한 마루 시공업체 관계자는 "오래 일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까지 현장에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아파트 평면은 복잡해지고 마루 제품은 다양해져서 시공하기 까다롭고 시간도 더 걸린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 타워크레인과 철도 파업 등으로 현장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건설업체는 협력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협력사 제품 품질을 검사하고 비정기적

으로 현장조사를 나가면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입주 물량과 검수할 품목도 많아 현재보다 두 배 많은 입주 관리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민 민원 대응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 모든 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상 사전점검이나 입주 후 발견된 미흡한 마감에 대해 제때에 정확하게 응대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입주시기를 연기하면서 마감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곳도 나타났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입주가 늦어지는 만큼 분양가의 30%가량인 잔금 회수도 늦어져 부담이지만, 나중에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 갈등이 커지면 소송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재업체와의 협력관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원재료비 상승분 지급 요청을 수용하면서 숙련된 작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가령 육식과 가구는 숙련자라고 해도 2인1조가 한 팀으로 작업해야 하루에 많아야 2~3가구를 시공할 수 있다. 그런데 경력 3년 미만의 초보 작업자는 이보다 속도가 현저히 더뎠다. 숙련자 확보가 중요하다.

특관가구 전문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방가구, 신발장 정도였는데 요즘은 불박이장, 팬트리로 작업량이 늘어서 작년부터 계속 시공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면서 빠르게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며 "동시에 숙련공을 불러 마감 품질을 높이고 작업이 완료된 현장에는 별도 검수팀을 보내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대한적십자사 2000만원 전달

전북은행은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추진하는 재난현장의 긴급구호활동과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가정 지원,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보급 등 각종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전북은행은 2007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해오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1층에

'사람의 땀 나눔터'를 설립하고 임직원들이 정기적인 땀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나들이' 등의 사업을 공동 주최하며 지역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광호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은행에 감사하다"며, "전달 받은 특별회비는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355억원 지원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 매입 · 부채 상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355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

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의 소득

이 50%이상은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지원조건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가격을 결정하고, 연간임대료는 매입 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환매기간은 임대기간 중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 X 연 3% X 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을 결정한다.

사업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to.or.kr)에 접속하면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도내 전문건설업체, 건설공사기성액 5.4% 증가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16년도 건설공사기성액이 전년대비 약 5.4% 증가한 2조 1,214억원을 달성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건설공사기성총액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속에 2011년 1조 7,506억원에서 매년 증가를 거듭, 5년 동안 21%(3,708억)가 늘어난 성과를 거뒀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는 0.7%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하도급공사가 7.7%(1,047억원)증가한 1조 4,50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억원 이상을 신고한 31개 업체의 하도급금액이 전체 하도급기성액의 33.8%(4,900억원)에 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들 상위업체들이 실적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

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이광한 회장은 "원도급 금액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처럼 하도급 수주액이 증가한 것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주능력 제고를 위해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한 회원사의 피땀 어린 노력과, 도내 대형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힘써준 건설공사 수주단을 비롯한 도내 발주기관들의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고 말했다.

한편 기성신고액 1위는 324억원을 신고한 (주)준건설, 2위는 (유)삼신기업(268억원), 3위는 (유)덕산건설(254억원)이 차지했다.

/안재용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을 모집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은 만기재직 후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게 되며,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부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상당의 세액을 감면 받게 된다.

가입기업의 경우 납입금에 대해 손부금의 25%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기능 요원 제도,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수출역량 강화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청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063-210-9926)로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무역협회, 스마트 클라우드 IT마스터 신입생 모집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의 '스마트 클라우드 IT마스터(이하 SC IT마스터) 과정'이 3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산업인력공단의 K Move 사업과 협력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 양성과정이다. 11개월 동안 웹 프로그래밍과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배운 후 일본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한다.

전공과 무관하게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

하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코엑스 무역아카데미에서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ICT 전문과정 및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이수하며 수료 1개월 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기업들과의 취업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참가신청은 17일까지 'SC IT마스터' 홈페이지(www.itmasters.org)에서 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